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정읍 소성면 산불 이재민 돕기 나서

사회복지법인 삼동회가 정읍시 소성면 산불 이재민을 돕기 위해 500만원의 성금을 기탁하며 따뜻한 연대의 뜻을 전했다. 삼동회는 지난 25일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소성면 주민들의 빠른 복구와 일상 회복을 응원하기 위해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이재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동회는 원불교 삼동유니를 바탕으로 노인, 아동 장애인 지역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복지 실현에도 앞장서고 있다. 2023년에는 익산시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해 300만원의 성금을 기탁하는 등 꾸준한 지역사회 기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한돈협회 부안군지부, 농농인재육성 장학금 기탁

2015년부터 기탁해 온 대한한돈협회 부안군지부(지부장 박용석)가 부안군 농농인재육성재단(이사장 권익현)을 찾아 지난 25일 장학금 1500만원을 기탁했다. (사)대한한돈협회 부안군지부는 돼지의 잡냄새 감소, 위생상태 개선 등 매일급 개발을 토대로 농장사육부터 도축, 전, 도축, 가공 및 포장, 유통, 운반 및 판매까지 단계별 기본 관리 원칙을 수립함으로써 한돈 품질 고급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명절 시기 취약계층에 대한 돼지고기 기부 등 이웃나눔 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어느덧 장학금 기탁을 700만원을 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적십자 가온누리봉사회, 남원 도통동 이불세탁봉사

남원시 도통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소선자)는 지난 27일, 대한적십자사 가온누리봉사회(회장 오일환)와 관내 갈치마을에 이불세탁 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는 도통동 찾아오는 이불세탁 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1일 1가구 소동행정을 통한 거동불편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발굴해 진행, 가온누리봉사회는 수거된 묵은 이불을 발로 직접 세탁하고 건조해 전달하며 따뜻한 정성까지 전했다. 가온누리봉사회는 가족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군, 생성형 AI 활용 직무교육 눈길

무주군은 28일 챗GPT 업무 활용 교육을 실시했다. 무주군민의 집 대강당에서 개최된 이날 교육에는 참여 희망 공무원 180명이 자리해 의미를 더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생성형 AI 기술의 발달로 인해 급변하고 있는 환경에 맞춰 공무원 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마련한 것으로, 교육관계자연구소 이틀 장미희 대표가 강사로 참석해 △생성형 AI의 개념과 △주요 활용 사례 실습 △문서 요약 및 △보고서 작성 등 공공업무에서의 활용 방법 등을 강의했다. 무엇보다도 개인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노트북 등 활용한 실습 교육이 큰 호응을 얻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최병선 전북대 총동창회장 연임

대의원회 개최, 후배들에게 장학금 1600만원 전달... "후배 지원 앞장"

전북대학교 총동창회 제41대 회장에 최병선 동문(치 의학과 80학번, 현 회장)이 연임됐다. 이에 따르면 최 회장은 최근 진행된 회장 후보자 접수에서 단독으로 출마해 무투표로 연임이 확정됐다. 임기는 2025년도 대의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을 공식 선포한 즉시 시작되며, 2년 후인 2027년 대의원회까지 이어진다. 최 회장은 "동문 여러분이 보내준 신뢰와 기대 그리고 모교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 번 깊이 새기게 됐다"며 "총동창회가 단순한 친목을 넘어, 실질적인 후배 지원과 모교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진수당에서 열린 전북대총동창회 대의원회에서는 '정병하 장학금'으로 15명의 학생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총 1,5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또한 박영삼 동문(전주세이유외과 원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0만 원을 기부, 총 1,600만 원의 장학금이 수여됐다.

/정읍성 기자



이어서 올해도 100만 원을 기부, 총 1,600만 원의 장학금이 수여됐다.

남원시,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현장 참여형 홍보 부스 운영

남원시가 제2 중앙경찰학교 유치 열기를 지역 안팎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제29회 지리산 운봉 바래봉 철쭉제 현장에서 현장 참여형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이번 홍보활동은 4월 28일부터 5월 25일까지 철쭉제 기간 중 주말 및 공휴일에 지리산 바래봉과 지리산터브밸리 일원에서 진행되며, 제2 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필요성과 당위성을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리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서명운동을 병행함으로써 공감대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제2 중앙경찰학교가 남원에 설립될 경우, 지방 경찰관들의 교육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어 전국적 치안 대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남원은 대한민국 남부권 중심부에 위치해 영호남과 그 인근 지역 경찰관들이 접근하기에 유리하다. 설립 후보예정지는 2019년 국립 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센터가 합장으로 이전한 후 유휴지로 남아 있는 부지를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 균형 발전과 미래 치안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제2중앙경찰학교를 남원에 설립해야 한다는 데에 시



민과 지역사회 전반의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밖에도 남원시에 주소를 두지 않아도 남원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개방형 시민 제도인 남원누리시민제에 누리시민증을 발급받으면 공공시설(8개소) 무료 또는 감면 입장, 누리시민 가맹점 할인(78개소), 지역 행사 및 축제 정보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제4회 고창갯벌 빅버드레이스', 성황리에 마무리

고창군이 주최한 제4회 고창갯벌 빅버드레이스가 지난 25~27일(3일간) 일정을 마치고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대회는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과 선운산유스호스텔 일원에서 열렸다. 국내외 36개팀, 130여 명의 탐조인이 참가해 고창갯벌의 철새를 관찰하고 기록했다. 고창군은 이번 대회를 통해 고창갯벌의 생물다양성을 확인하고, 갯벌 보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올해 대회에는 영국, 일본, 홍콩 등 해외 탐조인들이 함께 참여해 고창갯벌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중요한 기회를 가졌다. 고창갯벌에 사는 황새 이야기'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시작으로, 고창갯벌을 비롯한 운곡습지, 선운산도립공원 등 고창군 전역에서 본격적인 탐조 활동이 펼쳐졌다. 대죽도 탐조를 위한 트랙터 지원과 초보 탐조팀을 위한 기초 교육이 진행되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 업사이클링 밴드 '홀라(HOLLA)'의 공연과 함께 갯벌과 철새를 주제로 한 전시·체험 부스가 운영됐으며, 시상식에서는 탐조 기록을 공유하며 서로의 성과를 축하하고, 고창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재확인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



되었다. 대회 기간 중 가장 많은 조류를 관찰한 레굴루스 레굴루스 팀이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최우수상 'Friends of Gadal(영국)' 팀, 우수상 '호반새' 팀 '강화탐조클럽' 팀, 특별상 '독고니' 팀 '새라꿈이랑 팀, 멋쟁이새 으뜸상' 저어새의 고향 강화 팀, 예코플레이어스팀, 희귀새상 등 총 10여 개 부문에 걸쳐 수상이 이뤄졌다.

/고창=김영식 기자



황토현농협, 정읍 소성면 산불 이재민 성금 등 지원

정읍 황토현농협이 소성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성금과 영농자재를 지원하며 농업 재건에 힘을 보탰다. 황토현농협은 지난 25일 소성면 산불 이재민을 돕기 위해 477만원의 성금을 기탁하고, 2000만원 상당의 농약과 비료 등 영농자재를 지원했다. 특히 이번 성금은 황토현농협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십시일반 모은 금액으로 마련돼 의미를 더했다. 이번 지원은 농민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이뤄져 피해 농민들이 조속히 농사를 재개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토현농협은 성금 기탁 외에도 피해 농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필요한 농약, 비료 등 주요 영농자재를 적극 제공하며 재해복구에 힘을 쏟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임실 삼계면 이장협의회, 영남 산불 피해 성금기부

삼계면 이장협의회가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민들을 돕기 위해 삼계면사무소를 방문하여 현금 200만원을 기부하며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기탁 성금은 사회복식 공동모금회 전북특별자치도지회를 통해 피해 지역민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이장협의회 한병준 회장은 "큰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각 마을 이장님들이 함께했다"며 "하루빨리 피해지역이 복구돼 주민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환경로 삼계면장은 "선한 기부 문화가 더욱더 우리 지역에 확산되길 바라고, 이렇게 하나하나 모인 온정이 피해지역 주민의 일상생활 복구에 힘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정읍시, 장애인 대상 '청춘사진관' 행사 추억 선물

정읍시장애인복지관과 자원봉사센터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청춘사진관' 행사를 열어 삶의 특별한 순간을 선물했다. 복지관과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5일 복지관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청춘사진관 행사를 공동 주관하며 소중한 추억을 선사했다. 이번 행사는 노년기 장애인과 취약계층 25명을 초청해 젊은 시절을 회상하고 특별한 순간을 기록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다양한 분야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복지관 다목적실은 촬영 스튜디오로 탈바꿈했다. 자원봉사자들은 메이크업, 헤어, 의상 코디를 지원하며 참여자들의 변신을 돕고, 전문 사진작가 한 컷, 한 컷 정성을 담아 촬영을 진행했다. 촬영을 마친 후에는 인화된 사진과 함께 액자도 제공돼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장애인은 "낯선서 이런 사진을 찍을 기회가 없었는데, 화장도 해주고 머리도 해주며 사진을 찍는 소풍 같은 하루를 보낼 수 있어 너무 기뻐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우석대 홍채영, 월드 스포츠스태킹 챔피언십 2위

우석대학교 홍채영(스포츠지도학과 2년) 학생이 '2025 WSSA 월드 스포츠스태킹 챔피언십'에서 개인전과 팀 릴레이 부문에서 각각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세계스포츠스태킹협회(WSSA)가 주최하고 스위스스포츠스태킹협회(WSSASWISS)가 주관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스위스에서 열렸으며, 대한민국을 비롯해 미국·독일·일본·프랑스·말레이시아 등 23개국에서 총 414명의 국가대표 선수가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 이에 여자 성인부에 출전한 홍채영 학생은 개인전 2위를 비롯해 조한서·문성현·장택훈·김시은·최이준 선수와 함께 팀 릴레이 부문에서도 2위를 기록했다. 홍채영 학생은 "국가대표로 세계무대에 설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큰 영광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남원 금동, 폐가전제품 무료 방문 수거

남원시 금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봉래)는 취약계층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가전제품 무료 방문 수거 서비스를 취약계층 세대를 중심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무거운 가전제품을 직접 배출하기 어려운 어르신,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면 무료 방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주요 수거 품목은 컴퓨터, 선풍기, 전자레인지 등이며, 5개 이상이 모일 경우 가능했지만 이번 서비스는 1개만 있어도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약사회, 이동진료소 의료 물품 후원

남원시 약사회(회장 임진일)는 제95회 춘향제의 성공적인 개최에 동참하는 '동행페스타'의 일환으로 이동진료소 의료 물품을 후원한다고 밝혔다. 남원시 약사회는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 및 방한용품 후원을 실천하는 등 매년 지역을 위해 활발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이번 후원은 춘향제 기간 축제 현장을 찾는 많은 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해, 축제 현장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자발적으로 지원해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 후원 물품으로는 해열진통제, 소독약, 드레싱 밴드 등 필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후원, 이동진료소에서 제공하는 무료 건강 상담과 응급처치에 큰 도움이 되도록 했다. 또한 일부 회원 약사들은 자문 제공을 통해 축제를 찾는 시민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임진일 회장(건강한약국)은 "제95회 춘향제를 찾는 많은 이들이 건강하게 축제를 즐기는 데에 보탬이 되고자 물품을 후원하게 되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